

05. 01. 26

3차 매체 회의

1. 고정필자 섭외

- fenergy up 기분좋은 상상, daydream 의 이미지 : 슬래
- fenergy up 인물읽기 : 이갈
- 언어성폭력 : 열
- 영화읽기 : 모란
- 매체비평 : 늘
- 서평 : 원생들... 여방
- 졸업 후 여성주의자로서 살아가는 고민들 : 고동
- 만화 : 들레후배 or 희수씨 친구



2. 특집팀 구성

- 썸, 봄뜰, 고래, 비안
- 특집팀 첫 모임 : 30일 4시

3. 매체 이름

4. 기획글

- 주제잡기
- 각자의 기획안 보면서 다듬기

- 일정잡기 : 4차 회의 날짜 *제임. 1시.*

5. 광고글

- 넣을 광고 정하기

7-



[Handwritten signatures in purple ink]

[Handwritten signatures in purple ink]

새내기 기획안(ver. 자폐)

자폐의 새내기 기획안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과 크게 차이 없어요.

1. 출발점

학번으로 서열화 되어 있는 대학의 문화 상, 새내가 처음 접할 어떠한 단위든 Hierarchy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 새내기-선배의 권력관계는 학번 권력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한국 사회 내부의 hierarchy의 특성상, 이는 곧 마초적 반문화와 직결되고. 사실 뭐가 문제인지는 아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내야 할지에 대한 서로의 공유가 없는 듯 하여 그 방향으로 얘기를 풀어볼게요 ~

2. 타깃으로 분류하기 무엇을 더 얘기하고 싶은지

① 마초적 반문화가 왜 나쁜지, 어떠한 반문화로 가야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기획의 타깃이 반문화를 통해 상처를 입은 '여자친구'들은 아닌 듯. 대학 문화를 처음 접한 새내기들이 마초성이 왜 나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안했다기보단 못했겠죠) 그 대학 문화를 옳은 것인 양 받아들이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글의 타깃은 마초적 반문화를 조성해온 선배들, 고민이 없었던 새내기들이 되나요? - 사실 자폐는 이 이야기를 풀어냄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안이 있다면 풀어내는 것도 좋겠지만, 없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② 반문화의 마초성, 배제성에 상처를 입은 '여자친구'들을 타깃으로 삼는다면 확실히 fenergy up!이 기획의 중점이 되겠죠. 반문화에서 상처입고 나온 '새내기'들에겐 사실상 그 문제제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점, '니가 옳아'라는 식의 동의를 실어주는 것 이외엔 fenergy up이 없을 듯. 단, 여기서 ①보다는 더 심화된 이야기로 당신이 느꼈을 그러한 문제제기의 세세한 지점을 짚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역시 그들에게 제시해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는 정말 반에 애착이 있어서 반을 바꾸고 싶다면 '남아라' 대신에 거기에 대해 동의를 무한정 실어줌으로서 힘을 주는 것, 만일 힘들다면 반이 아닌 다른 대안(동아리 등)을 제시해주는 것밖에는 없을 듯.

①, ②의 차이는 아무래도 우리 매체의 독자를 누구로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겠군요. 두 가지를 제시한 건 사실 자폐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②가 더 좋긴 하지만) 우리 매체의 독자를 누구로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 좋을 듯 하구요.

사실 자폐는 '선배들'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직 아무도 애길 꺼내준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선배들의 권력은 참 모호하지 않나요? 학번 권력이 깊게 남아 있는 대학사회에서 분명히 여자선배들은 '권력의 상위'에 속할텐데, 성별 권력에서 하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걸 또 여자선배들도 (학번)권력을 가져라!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에 대해선 자폐가 구두 발제를 할 테니 거기에 대해 다시 얘기해보아요.

현장에 대한 생각?

공감대에 대한 생각.

문화 경험
L 여자친구들의 .
특정 배경.

☆매체 첫 기획 - 새내기☆

(우리 매체 이름은...OTL <dreaming billows> 어때요? 이것도 유치한가 땀)

기획안 by 별

☆단지 그대가 선배라는 이유만으로(가제)☆

학내에서 선후배간의 나이에 관한 권력 관계는 '반말 쓰는 선배 - 존댓말 쓰는 후배'로 대표되듯이 매우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일상 속에서 정상화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언어로 표현되는 권력 관계를 설명하며, 일상화된 선후배간 반말 - 존댓말 구도를 비판한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획득하게 되는 권위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과 이런 권위가 횡포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짚어본다. 나아가 이런 권위를 없애고 자유로운 학내 생활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이고도 간단한 첫 번째 대안으로 서로 완전히 존댓말 혹은 반말쓰기를 제안하고, 별칭으로 부를 경우 이것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구체적 개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 입학하면서, 혹은 굳이 입학 때가 아니더라도 선배들을 만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존댓말-반말 문화
- 매우 일상화되어있음을 지적

☆나, 너보다 나이 좀 더 처먹었거든? (←이거 너무 강한가요? 땀)

- 존댓말-반말이라는 언어 구조로 인한 권력 관계 형성을 설명
- 나이가 많거나 학년이 높다는 이유로 권위를 획득하는 분위기 비판
- 이러한 권위가 사용되는 구체적 상황 또한 비판
- 나이가 어리거나 학년이 낮다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음

☆안녕하세요, 후배님?

- 너무 정상화되어있던 후선배간 권력 관계에 대한 고찰
- 서로 존댓말/반말을 쓰는 노력을 대안으로 제시
- 특히 호칭이 생략된 존칭을 쓰면 그 노력이 더 쉽고 평등한 관계를 이루기도 좋다는 것을 소개
-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보다 자유로운 대학 문화(!)를 만들어 봐요

매체 기획안

발신 : 고래

수신 : 움·펼·툼 집행부

새내기들을 염두에 두고 기획 글을 쓰게 된다면, 새내기들이 곧 구성원이 될 대학 공동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daydream과 she said에서도 모두 1호에서 반 문화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다.

2005년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에도 반에 대해서 무언가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반 문화에 느낄 수 있을만한 변화가 많이 없었다는 것일 게다. 그러나 나는 내가 무엇을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반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거나 책임감을 가졌던 적이 없었고, 반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 문화 안에서 생기고 있는 갈등과 충돌생기는 지점을 섬세하게 뽑아내기가 힘들다. 흔히 말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거칠게나마 그려내는 것 말고는.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반에 대한 단상들..

자폐는 타깃으로 글의 방향을 나누어보았던데, 사실 나는 애매하다.